

Date: 22 Av 5786 (August 5, 2026)

Torah Portion: Re'eh

Topic: The Sword and the Scroll, Part 2

그 후 미드라시는 예레미야의 말을 두 번째로 해석합니다. 토라를 “듣고”, 그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선(善)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죄가 개인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토라를 거부할 때마다, 그는 여호와(YHWH)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신성한 선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락하지만, 반역은 이를 방해합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드라시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와 그의 입의 말씀이니라”(사 1:19-20). 여기서는 신명기에서와 같이 축복과 저주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순종은 선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지만, 반역은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미드라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만약 보상이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라면, 형벌은 단순히 기근이나 가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사야는 갑자기 ‘칼’을 등장시켰을까요? 현자들은 생생한 이미지로 답합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토라가 주어질 때, 하늘에서 두루마리와 칼이 서로 뒤엉킨 채 내려왔다고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살면 이 칼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버리면 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이 상징성은 매우 심오합니다. 두루마리는 언약, 지혜, 생명, 그리고 여호와와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칼은 심판, 단절, 죽음을 나타냅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칼에서 한 걸음 멀어지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서 한 걸음 멀어지는 것은 멸망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과 저주는 임의적인 보상과 처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켈름의 알터(The Alter of Kelm)는 이 이미지를 놀라운 영적 통찰력으로 확장합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서 단지 짧은 한 철 동안만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직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생명 위로 죽음이 천천히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완전히 살아있다고 믿을지라도, 매일 지나가는 하루는 그에게 남은 날들의 수를 조용히 줄여갈 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칼은 이미 침묵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간 그 자체가 죽음의 하인이 됩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은 지상의 삶을 단축시키고, 마침내 영혼이 떠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토라를 품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현실에 따라 살아갑니다. 현인들은 아기가 모태에 있을 때 천사가 온 토라를 가르쳐 주며, 태어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언뜻 보게 해 준다고 가르칩니다. 태어날 때 그 지식은 숨겨지지만, 그 흔적은 영혼에 각인된 채 남아 있습니다. 지상 삶의 목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한때 여호와와의 임재 안에서 알았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모든 페이지, 행해지는 모든 미쯔바(계명), 진심 어린 모든 회개, 악한 본성을 이겨낸 모든 승리는 그 영원한 유산의 또 다른 조각을 회복시킵니다. 성품은 정화됩니다. 엘로힘(Elohim)의 형상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평범한 날들이 영원한 보화로 변화됩니다. 시간은 더 이상 그저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redemed)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날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의 흐름 자체가 변화됩니다. 오직 세상의 이익만을 쫓는 이들에게 매일은 살아가야 할 날이 하루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토라 안에서 걷는 이들에게 매일은 영원한 거처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돌이 됩니다. 그들의 행함은 오는 세상(내세)까지 그들과 동행합니다.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여호와와의 생명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됩니다.

이 이해는 우리를 모세의 첫 선언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축복은 물질적 번영 그 이상이며, 저주는 지상의 고난 그 이상입니다. 진짜 선택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 사이에 있습니다. 한 길은 교만, 자족, 그리고 칼의 점진적인 승리로 특징지어집니다. 다른 길은 겸손, 귀 기울이는 순종, 그리고 토라의 두루마리 안에서 발견되는 생명으로 특징지어집니다.

미드라시의 메시지는 모세 시대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급합니다. 두루마리와 칼은 모든 세대 앞에 여전히 서로 뒤엉킨 채 서 있습니다. 토라를 놓아버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칼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토라를 굳게 붙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나무를 붙잡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품을 때 칼은 물러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축복이 단지 오는 세상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미래의 보상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현실—즉 영원한 말씀으로 덧없는 날들을 영원한 유산으로 변화시키시는 여호와와 함께 걷는 기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shalom.